

CHAIRPERSON NOTE

경제 이슈

- 2/4분기 교역 조건 사상 최악
- 중국 경제 경기 둔화 조짐

경영 노트

- 혼다의 글로벌 환경 경영

사회 트렌드

- '된장녀'의 사회학
- 스마트 의류, 연말부터 시판

저널 브리프

- 고조되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洗心錄

- 질문 리더십

□ 2/4분기 교역 조건 사상 최악

- 원자재 가격 급등과 주력 수출 품목 가격 하락으로 올해 2/4분기 순상품 교역조건지수(2000년=100)가 사상 최저치인 72.5를 기록함
 -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수출단가지수의 수입단가지수에 대한 비율(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로 계산되며, 이 지수가 낮을수록 수출의 실익이 감소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함
 - 순상품교역조건 악화의 원인은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수입단가지수(125.8)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주력 수출 품목인 중화학 공업 제품의 수출 단가 하락으로 수출단가지수(91.2)는 하락하였기 때문임
- 교역 조건의 급속한 악화는 국내 소비자의 구매력 약화, 기업의 채산성 급락 등을 통해,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실질 GNI (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감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 중국 경제 경기 둔화 조짐

- 중국 정부의 인플레이션을 우려한 금리 인상과 같은 경기 과열 억제책의 영향으로, 최근 산업생산 증가율의 하락, FDI(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인직접투자) 감소 등 중국 경제의 경기 하강 조짐이 나타남
 - 중국의 7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6.7%로 6월의 19.5%보다 2.8%p 감소하였으며, 7월 FDI는 약 43억 달러로 전년동월대비 5.5% 감소함
 - 한편 최근 세계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어, 2007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올해 예상치 10.4%보다 1%p 하락한 9.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중국 진출 기업들의 경우 이와 같이 중국 시장 수요 위축이라는 위협 요인에 직면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축소와 환경 기준 강화 등으로 제도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경영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혼다의 글로벌 환경 경영**

- (개요) 혼다는 2010년까지 전 세계의 각 생산 거점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대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0년 대비 10% 이상 절감하기로 선언
 - 지구온난화 문제 등 글로벌 차원의 환경경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혼다는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 노하우에 대한 글로벌 공유의 필요성을 인식함
 - 혼다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이미 5% 절감하는 데 성공했으며, 향후 2010년까지 추가로 5% 이상 절감을 추진중임
- (내용) 환경 개선 방안의 효과적인 글로벌 확산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본부별 '환경 회의'를 조직하고 환경 개선 사례를 발표하는 대회인 '혼다 그린 대회'를 개최
 - 혼다는 1995년부터 그룹 차원에서 '세계 환경 회의'를, 각 지역 본부에도 '환경 회의'를 설치하여,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환경 대책을 공유하는 체제 구축을 추진
 - 또한 1999년부터 환경 보전 활동의 우수 사례를 표창하기 위하여 생산 현장뿐 아니라 연구소, 영업소, 관련 자회사 등이 참여하는 '혼다 그린 대회'를 실시
 - 혼다가 높은 CO₂ 절감 목표를 정해 놓은 이유는 현장의 구석구석까지 환경경영에 대한 전사적인 의식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서임
- (시사점) 점증하는 전세계적인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환경기술의 글로벌 공유를 추진하기 위한 체제 및 역량 결집이 필요
 - 특히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거대 기업의 경우, 환경 대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강력하고 전사적인 추진 체제의 정비가 요구됨
 - 한편 각 지역별 기후 및 문화의 차이와 생산 라인 및 설비의 격차로 인한 차별적 환경기술을 효과적으로 보유하고 이를 전사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성공적 환경경영의 요인으로 작용
 - 이에 따라 현장에서의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동기 부여 방안을 모색하고 효과적 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글로벌 환경경영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

□ ‘된장녀’의 사회학

- 된장녀는 지난해부터 일부 인터넷 카페에서 20대 여성을 비하는 표현으로 사용돼 오다 지난달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된장녀의 하루’라는 글이 확산되면서 ‘허영에 찬 여성들’이란 개념으로 바뀜
 - 인터넷에 비취진 된장녀의 모습은 ‘자기 치장에 지나치게 몰두하고, 명품으로 치장하고, 테이크아웃 커피점과 패밀리 레스토랑을 즐겨 찾으며 뉴요커가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있는 20대 여성’임
- 그런데 온라인에서 시작된 된장녀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확대되고 있음
 - 허영에 물든 사회의 단면을 꼬집었다는 주장과 근거 없이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 만들어진 왜곡된 인터넷 문화라는 반박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음
 - 일부에서는 실업 등으로 불만에 쌓인 젊은이들이 된장녀와 같은 대상을 만들어 마녀사냥에 나서는 것이 아닌가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음
 - 이럴 경우 평범한 여성도 된장녀로 몰릴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낄 정도로 사회문제화될 수 있고, 자칫 우리 사회에 만연된 ‘편 가르기’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임

□ 스마트 의류, 연말부터 시판

- 옷에 첨단 IT가 접목돼 ‘똑똑한’(스마트) 일들을 척척해내는 이른바 스마트 의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 MP3 플레이어가 내장된 의류가 연말부터 시판될 예정이라고 함
 - (MP3 조깅복) 주머니에 달린 단추만 누르면 원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음
 - (헬스케어 의류) 운동하는 동안 체온이나 심전도 등 건강 신호를 체크해 컴퓨터로 전송하는 운동복
 - (광섬유 의류) 음악 소리와 리듬에 맞춰 빛을 발하는 발광 의류(파티복)
 - (미아방지용 어린이 내의) 옷에 붙은 센서에 휴대폰을 대면 부모의 연락처를 즉각 알아낼 수 있음
- 스마트 의류는 미국, EU 등에서도 시작 단계에 있는 첨단 산업임
 - 시장규모는 2008년께 2억 달러, 2010년 7억 달러, 2014년 70억 달러 등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

□ 고조되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고조) 최근 세계 경기가 감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플레이 압력이 고조되고 있어 세계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돌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세계 경기 감속)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양축인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세계 경기가 감속될 가능성이 큼
 - 미국 경제 감속: 2006년 2/4분기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크게 밑도는 2.5%를 기록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제전망기관들 또한 2006년 미국 경제가 3%대로 둔화될 것으로 보는 등 경기감속 가능성이 높음
 - 중국의 긴축정책에 의한 경기 조정: 2006년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인 8%를 크게 웃도는 11%에 가깝게 성장, 과열경기에 따르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커짐에 따라 9월 이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긴축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경제 인플레이 압력 고조) 고유가 지속과 중국의 상품 비용 여건 악화 등으로 세계 경제 인플레이 압력이 고조되고 있음
 - 고유가 지속: 이미 80달러에 근접하고 있는 국제유가는 주요 산유국들의 자원민족주의와 석유업체들의 투자 부진, 투기자금들의 가수요 등으로 세계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쉽게 안정을 되찾기 어려울 것임
 - 중국 상품의 비용 여건 악화: 금리 인상 지속과 가파른 근로자 임금 상승 등으로 중국 상품의 비용 여건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어 중국 상품 수입 비중이 높은 미국, 한국 등의 국가들의 인플레이 압력 고조
- (한국 경제, 세심한 정책 대응 필요) 한국은 타국들보다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 정책 당국은 정확한 현실 인식을 토대로 보다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함
 -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큰 한국 경제) 현재 한국 경제는 정부의 낙관론과 민간 중심의 비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으나 갈수록 비관론이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와 중국 상품의 수입 비중이 높아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가 타국보다 훨씬 큼
 - 세심한 정책 대응 필요: 금융 긴축을 통한 인플레이션 대책도 필요하나, 기업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기업 투자 활성화로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이 보다 더 중요한 정책 과제임

* 이 글은 『한경 비즈니스』(2006.08.21)에 실린 글을 요약, 정리한 것임.

□ 질문 리더십

최근 전 세계 리더십의 화두는 질문과 코칭이다. <질문 리더십(Leading with Questions)>을 쓴 마이클 J. 마퀴트(Michael J. Marquardt)는 통찰력 있는 리더는 질문부터 다르다고 단언한다. 유능한 리더들의 공통점은 원활한 대화를 이끌어내고 구성원들의 참여와 팀워크를 극대화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결과적으로 열정이 넘치는 일터를 만들고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끈다. 그는 성공하는 리더의 질문에는 10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한다.

1. 집중력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한다.
2. 깊이 성찰하게 만든다.
3. 고정관념을 타파한다.
4. 용기와 힘을 북돋는다.
5. 아이디어와 돌파구를 마련한다.
6. 훌륭한 해법을 찾는 열쇠를 전달한다.
7. 더 나은 관점을 선사한다.
8.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이 생각하게 한다.
9. 행동방식과 사고방식의 기준을 재검토한다.
10. 긍정적이고 위력적인 행동을 낳는다.

특히 리더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직원, 팀, 조직, 자아의 성장을 이끄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성공의 핵심은 질문이다. 부족한 리더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 훌륭한 리더는 질문을 많이 한다. **위대한 리더는 위대한 질문을 한다. 창의적인 사고는 다름아닌 위대한 질문에서 시작된다. 질문이 두려운 조직에는 미래가 없다!**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반드시 미래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

- 아메리카 인디언 금언